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무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이사 6,1-2, 3-8

제2독서: 1코린 15,3-8,11

복음: 루카 5,1-11

가톨릭 성가 입당: 18

봉헌: 34

성체: 174

파견: 445

◆ 화답송



주 님 - 천 사 들 앞 에서 찬 미 노래 부르 나 이 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앞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자 되기”

- 신부님, 사제들이 존경스럽고 멋있어요!
- 그럼 큰 아들 신학교 보내세요,
- 아, 예……, 그 아이는 3대 독자예요,
……
- 성당에 오면 너무 깨끗하고 성가대 소리가 너무 좋아요,
-오늘 대청소 있으니까 청소 같이 하고 성가대에 들어오실래요?
- 아! 제가 좀 바빠서……,

오늘 복음은 군중과 제자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군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세상에 태어나 본 것, 배운 것 모두가 물고기 잡는 일이었던 그들에게 낯선 젊은이가 자신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 포기했던 곳에 그물을 치라고 명한다. 이에 제자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따른다.

우리들 일상의 삶에서 제자와 군중은 그다지 차이가 나질 않는다. 오히려 군중은 말씀을 듣는 데에 보다 적극적이고 더욱 감탄한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삶에 분주해 말씀을 듣는 데에 그리 열심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감탄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러나 제자와 군중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제자는 자신이 들은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실천하는데 반해 군중은 듣고 감탄하지만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는다.

점점 듣기만 하고 감탄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다. 나의 영적 게으름, 이기심으로 군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주간 제자가 되기 위해 손과 발을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여보자. ♠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2월 10일	주세정 레이첼	민성진 에드문드	박예하 레나	이미진 조앤그레이스	고은경 모니카	유기호 진문자	임유진 장동엽	윤숙자 백승훈 이경자(울) 이영혜 이경자(벨) 신애송 박기목 박민재
2월 17일	차지욱 안토니오	백승민 안드레아	정유진 콘솔시아	박정은 마리아	진달래 아가타	채봉석 채미재	김가연 홍명	이영근 양미숙 이경자(울) 김효진 이경자(벨) 채봉석 안선정 김성중

◆ 단 체 모 임 안 내

사목회	4th 주일 11:00 am	Conf. Rm(2F)
요셉회	2n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 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울뜨레아	1st 주일 11:00 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 pm-7:30 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 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	4th 주일 11:00 am	Francis Room
주일학교	매주 주일 10:30 am	Conf. Rm(1F)
교사회	1st 주일 12:00 pm	Conf. Rm(1F)
FYMN기도모임	2nd, 4th 금 07:00 pm	Conf. Rm(2F)
남북통일기도모임	매주 화 3:00 pm-5:30 pm	KoreanConf. Rm(2F)
Choir 1 (하늘처럼)	주일 8:30 am & 11:00 am	Choir Room
성경공부 (L.D)	목 06:15 pm	Conf. Rm(1F)
RCIA (수녀님)	매년 9월 시작~매주일 10:50 am~12:10 pm	교육관 5
구세주의 모후pr (1)	주일 08:00 am	Conf. Rm(2F)
바다의 별pr (2)	주일 08:00 am	교육관 3
은총의 샘pr (3)	수 03:00 pm	KoreanConf. Rm(2F)
평화의 모후pr (4)	수 07:30 pm	KoreanConf. Rm(2F)
우리 즐거움의 원천pr (청년. 5)	화 07:00 pm	KoreanConf. Rm(2F)
신비로운 장미pr (청년. 6)	월 07:00 pm	KoreanConf. Rm(2F)
사랑의 샘pr(청년. 7)	주일 01:00 pm	KoreanConf. Rm(2F)
희망의 모후pr(청년. 8)	목 07:00 pm	KoreanConf. Rm(2F)
청년회 (FYNY)	*청년미사 모임	두 번째 토 05:45 pm 주일 미사 후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 04:00 pm	Conf. Rm(2F)
Choir 2 (처음처럼)	둘째 토 5-6pm 그 외 매주 토 4-6pm 주일 01:30-3:30pm	Choir Room
Choir 3 (야웨이레 찬양팀)	첫째 토 12 - 3pm 둘째 토 3 - 5pm	Francis Room
청년 성서모임	주일 01:00 pm	Damiano Hall
청년 성령기도회/ 청년 Lectio Divina	1st, 3rd 수 07:10 m/ 2nd, 4th 수 07:10 pm	Francis Room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야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Sam Ahn
NEWSTAR
NewStar Realty 부동산
(론도, 빌딩, 매매, 리스, 사업체)
(M)201-294-4510 (T)212-967-4242
smahn@newstarrealty.com
16W 32nd St. #702, New York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corcoran
real estate
David Son
david.son@corcoran.com
917-613-7305

동양보험
Property & Liability Wholesale Brokerage
이은경 헬렌 Licensed Broker
212-683-9393
16W 32nd St. Suite705 New York, NY

메디케어/시니어 플랜전문
가입변경 처방 약 추가해택, 롱텀케어 무료상담
Licensed Insurance Agent
Jane Min 민재인
(929)888-3030
Jane@usboh.com 카톡문의 @usa메디케어

Sae Woong Rho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OLYMPIA
올림피아 여행사
OLYMPIA TOURS & TRAVEL
항공권(대한항공 대리점), 고국 관광, 유럽/남미여행, 유람선, 신혼여행 등
박옥영 로사리아
212-695-6699, 718-224-9477
www.olympiatourusa.com 1270 Broadway #302, New York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Kyani
알래스카 야생블루베리와 홍연어 주원료
모든 성인병, 암, 아토피, 당뇨, 심장질환 외에 탁월
효과를 건강하게, 염증제거, 자연영양공급
이클라우드
917-484-11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8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인공지능 투자자
2017년 베스트 셀러!
권트
윌스트리트 인공지능의 지열한
전쟁 이야기
반다북US, 고려서적, 리더북에서 절찬 판매 중
문의-관용진 바오로
yjp.kwon@gmail.com 646-831-8031

JM JAKE MOVING
917.450.8389 NY
NJ 201.300.7881
손님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포장이사 • 타주이사 • 귀국이사 • 학생이사
서정호 야코보 jakemoving77@gmail.com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F-1 I-20 발행)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FL New York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연령회**가 오늘 11시에 아래성당에서 시작합니다.

☞ 고 이영우, 이태모 님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 **성모회**가 오늘 11시에 교육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요셉회**가 오늘 11시에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모든수도자 블라시오 야가타 스킨라스티카
치릴로 폴리카르포

➤ **주님 봉헌 축일 초 판매**

학부모회가

각 가정에서 1 년간 사용할 초를 판매합니다.

아울러 예약하신 초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시 : 오늘 미사 후, 친교실

➤ **2월 성경 공부 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오후 1시30분~2시50분	

➤ **한국학교 등록**

https://manhattan.co1.qualtrics.com/jfe/form/SV_5na7jL2bd9nvPsp

마감 : 2월 17일(주일)

➤ **2019년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파티마, 프랑스 루르드(3개국)”

일시 : 2019년 9월9일(월) - 9월19일(목)(10박 11일)

참가경비 : \$ 2,900 선착순마감 : 25명 예약금 \$500

문의 : 성당 사무실

➤ **요르단-이스라엘 성지 순례**

주관 : 버지니아 재속 프란치스코회

일시 : 2019년 11월 4일 ~ 16일(12박 13일)

인솔사제 : 작은형제회 박성호 다미아노 신부,

윤여원 요아킴 신부

경비 : 미화 3,800 달러/ 신청마감 : 2019년 3월 31일

연락처 : 한기남 데레사 hankids5@gmail.com

cell : 703-674-6081, 집 : 703-425-9445

사용된 사료(史料)

다른 복음서들과 대조 연구를 통해 비교적 쉽게 편집과 사료의 요소들을 가려낼 수 있는 루카 복음의 경우와는 달리, 사도행전의 저자가 어디에서 사료를 수집하고 어떤 종류의 사료를 사용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힐 수 없다. 19세기 초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던 갖가지 사료에 대한 가설들은 세월과 더불어 퇴색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순수한 가설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몇몇 학자들이 오늘날까지 심심치 않게 거론하고 있는 가설로는 아람어 번역설과 여행일지설이다.

설교가 많은 이유와 그 분석

지난 두 세기 동안 사도행전의 연구가들은 이 책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설교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것은 설교들 안에서 사도행전의 문학적 특성과 핵심 메시지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설교들은 전승과 편집이 함께 어우러진 기록으로, 초대 교회의 전통을 충실히 살다간 루카의 원숙한 신학적 사상과 문학적 기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문장가인 루카는 어휘와 표현이 풍부하고 사건들을 자신의 신학적 구도에 따라 순서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시킨다. 그의 문학적 역량은 크게 두 가지 문헌, 당시의 그리스-로마 역사문헌과 칠십인역 구약성경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된 것이며, 그가 설교 안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사상의 기반은 초대 교회의 전승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설교의 배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8개, 바오로의 설교가 9개,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설교 7개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2, 3, 5,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13장에 나오는 바오로의 설교 설교다.

사도행전의 설교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각각 조금씩 다르다. 먼저 의회에서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하느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바오로의 다른 두 개의 설교(14장과 17장)는 이방인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를 소개하는 대신 이방인들의 다신교 신앙을 비판하고, 유일신교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각각의 설교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형식과 문학적 기법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로마의 역사문헌을 모방했고, 그 내용과 어휘 및 표현에 있어서 칠십인역 구약성경과 루카 복음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교들은 실제로 당사자들에 의해 발설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세사관을 피력할 목적으로 루카가 편집해 이야기에 첨부시킨 것이지만,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칠십인역 구약성경과 루카 복음을 태동시킨 유대-그리스도교적 전승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 맛들이기" - 사도행전

저자

네 복음서의 경우들처럼 사도행전의 저자 이름도 감추어져 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3복음서인 '루카 복음'의 저자와 동일하다는 것뿐이다. 두 책의 서문과 문체, 사상 등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

전통적인 견해로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오로의 협조자'(필레 1,24 ; 콜로 4,14 ; 2티모 4,11)인 '의사 루카'(콜로 4,14)라고 한다. 180년경 로마에서 작성된 무라토리오 경전 목록과 2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리옹의 주교 이레네오의 반이단론이 이를 최초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소개하는 자신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소개된 바오로상(像)이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는 단지 그가 바오로의 협력자라기보다는 바오로 이후 시대 사람으로서,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가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서술하고자 애썼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팔레스티나 지리에 대해 어둡고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풍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점들로 미루어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정한다.

집필 대상

사도행전의 저자가 마음에 둔 독자는 일반적으로 이방계 그리스도인 또는 이방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성서학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견해의 근거로 우선 이 저자의 문학적 기법이 당대에 흥미하던 그리스-로마 문학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도행전과 루카 복음의 서문에서 집필 대상과 동기를 밝히는 헌정사는 당대의 그리스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문학적 관습 중 하나였다.

이 헌정사에 나오는 후원자는 테오필로스이다. 이 이름은 3세기경부터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흔히 사용되곤 했다. 루카 복음의 서문을 보면 그의 신분이 아직 예비신자이거나 갓 입교한 신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도행전과 루카 복음의 명시적인 독자가 테오필로스라 할지라도 저자가 염두에 둔 독자는 테오필로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집필 연대 및 장소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팔레스티나 밖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집필 장소를 근거 있게 제시할 수 없다. 집필 시기는 루카 복음의 경우 로마군의 예루살렘 침공을 비교적 분명하게 암시하는 듯한 기록으로 보아(21,20-24) 70년 이후가 확실하다. 그리고 루카 복음의 기록들이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저서(93년경)와 무관한 점은 사도행전과 루카 복음의 집필 시기를 최소한 90년도 초반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해주므로 8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무난할 것이다.

집필 동기

첫 번째 책에서 테오필로스와 그 외 다른 독자들에게 예수께 대한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남김없이 보고한 루카는 이제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는 두 번째 책을 시작한다. 그는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첫 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사도 1,1-2).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히 전하며 자연스럽게 첫 번째 책의 끝에 두 번째 책의 처음을 연결시킨다. 아마도 루카 복음이 쓰인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것이기에, 이런 절차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 미 사 봉 헌

● 연미사

이영우, 이태묘
이승순
육연경 로사

봉헌
이상홍 스테파노
성모회
차경자 카타리나

● 생미사

김순한 루시아
김지현 스콜라스티카
이경숙 스콜라스티카, 진문자 스콜라스티카
정창동 폴리나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김광욱 미카엘
김서윤 아네스, 정하진 아멜리아
울뜨레아 회원들
강견대 마리아
표해심 카타리나
이경자울리안나,성미나아가다,진문자스콜라스티카
성령기도회 회원과 그 가족

벨라, 강호영안드레아
부모
익명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양미숙 마리아
정희자 리드비나
김승연 안나
울뜨레아
김지영유스티나,연령회
연령회
성모회
성령기도회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2,030
감사헌금 \$ 0
합 계 \$ 2,030

교무금 :

윤복홍 민재인 진홍섭 김택영 이영순
노혜영 김행자 박기목 오지연 송명자
허철범 세리나B헤드지 서지석 경원유
린다김 김영빈 김성중 김수경 김애희
김창훈 김보현 김계현 양복연 이경자(울)